

# 여성취업률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가정폭력 정당화에 미치는 영향: 개인과 국가 수준의 위계선형 분석

장 초 록\* · 홍 명 기\*\* · 황 의 갑\*\*

## 〈요 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요인을 진단하였다. 개인수준의 변수로는 경제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의 변수로는 성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를 고려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총 36개 국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에서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취업률 자료와 경제정보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주의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변수인 경제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모두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의 변수인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 또한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수준의 왜곡된 성역할 인식과 국가수준의 성불평등이 가정폭력 정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 조성 및 국가수준에서의 성 평등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가정폭력 정당화, 성불평등, 여성에 대한 편견, 민주주의, 여성취업률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학과 석사 (제1저자)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학과 석사과정 (공동저자)

\*\*\*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일반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 론



## I. 서 론

함무라비 법전에는 “남성에게는 그의 아내를 벌할 권한이 있다”고 쓰여 있다 (Warren & Lanning, 1992). 이처럼 가정폭력은 오래 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해 왔지만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이다(Pizzey, 1974). 우리나라에서 3년마다 시행되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1%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으며, 부부 간 폭력의 경우에도 45.5%로 대략 2가구 중 1가구가 가정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 단 1.8%만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98.2%는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문제 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이들 사이의 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정폭력은 국제적인 문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빈민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Akram & Manzoor, 2015; Eswaran & Malhotra, 2011). 국제적으로 여성인구의 약 3분의 1(35%)이 남편 또는 남자친구에 의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WHO, 2016), 미국 여

성의 경우 약 4분의 1 가량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Coker, Davis, Arias, Desai, Sanderson, Brandt, & Smith, 2002; Showalter, 2016; Straus, Gekkes, & Steinmetz, 1980). 또한 여성인권수준이 낮은 이슬람문화권 국가와 아프리카의 경우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Davies & Dreyer, 2014; Lander, 2014).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인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지속적인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Betancourt, Newnham, Layne, Kim, Steinberg, Ellis, & Birman, 2012; Salcioglu, Urhan, Pirincioglu, & Aydin, 2016), 낮은 자아효능감을 보이게 된다(Sahin, Timur, Ergin, Taspinar, Balkaya, & Cubukcu, 2010). 아동기 가정폭력을 경험할 경우, 그 심각성은 더 커진다. 이들은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로 인해 비행율 저지를 확률 또한 높아진다(기광도, 2011; Howing, Wodarski, Kurtz, Gaudin, & Herbst, 1990; Kilpatrick, Aciemo, Saunders, Resnick, Best, & Schnurr, 2000; Siegel & Williams, 2003).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폭력 범죄로 체포될 가능성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McCord, 1983; Widom, 1989). 이처럼 가정폭력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 하면 아동학대나 방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정서적으로 가장 친밀한 존재인 남편에 의해 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남편에 의해 폭행을 당한 여성의 경우 외부와 고립되어지고, 폭력대응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자녀양육이 불가능해지는 성향을 보였다(Farris & Fenaughty, 2002; Huang, Wang, & Warrenner, 2010; Yoo & Huang, 2012). UN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0년도부터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를 설립하여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는 성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편견이라고 한다(Hyde-Nolan & Juliao, 2012). 과거의 남존여비 사상에 익숙해져 있었던 관계로 여성의 사회참여에 부정적인 시각

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을 나약하고 소극적이며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의 성 역할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성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학습하게 되고(Linton & Lorde, 2011), 자연스럽게 여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성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사회가 민주화 되어 감에 따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평등해져 가고는 있지만, 여성인권수준이 낮은 몇몇 국가의 경우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성불평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경제적 편견을 가정폭력의 요인으로 진단한 선행연구는 드물다. 국가와 개인수준의 성평등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며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남녀 성불평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개인수준의 변수인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이 가정폭력을 정당화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수준 변수로 남녀 성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지수와 여성취업률을 통해 국가 간 가정폭력 정당화 수준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성평등 관련요인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을 설명하려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이론적 배경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기회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이러한 성 불평등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이러한 사회적 성불평등과 성 역할 편견을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정리하였다.

## 1)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

인류는 역사적으로 남성중심의 사회적 구조를 구성하여 왔으며,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사회구조의 중심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손덕수, 1990). 이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을 초래하였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근대시민혁명을 시작으로 모든 인간의 평등함과 기본적 권리, 자유의 보장이 주장되었지만 사실상 남성의 권리만을 의미하였다(김엘림·윤덕경·박현미, 2001). 한 예로 시민혁명의 발생지인 프랑스에서조차 여성의 투표권을 1945년이 되어서야 인정하였다.

여성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20세기에 들어서 유엔(United Nation: UN)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유엔 제 34차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여성에 관한 사실상의 인권 평등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 국가에서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전개되었다. 이 협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 한다”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의무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조치의 개정과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 또는 관행, 여성의 사회생활·가정생활에서의 차별, 고용에서의 차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와 부합한다(남인숙, 1999). 하지만 성 평등을 위해 노력한 시간보다 여성이 차별받아 온 시간이 길며, 여성의 권리에 관한 올바른 학습이 미치지 이루어지지 못한 국가가 존재함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성 평등은 모든 여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에 속한 여성은 여전히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에 노출되어져 있다. 성 불평등주의 국가에 속한 여성의 경우, 성 평등주의 국가에 속한 여성보다 범죄피해경험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Haynie & Armstrong, 2006; Lei, Simons,

Simons & Edmond, 2014; Pratt & Godsey, 2003). 이는 성 평등과 그에 따른 여성의 삶의 질이 국가 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2) 성역할(Gender Role)에 대한 인식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역할 인식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격과 과업, 그리고 남녀사이의 관계가 포함된다(정윤탈 · 서재욱, 2016; Schalkwyk, 2000).

전통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문화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구분된다. 여성의 경우 가사와 인류 재생산의 역할을, 남성의 경우 가정의 부양을 위한 임금노동, 가정의 기장을 바로잡는 역할, 가정의 시설유지 역할을 맡는다(Lindsey, 2010). 이처럼 요구되는 과업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교육을 받아 왔다. 여성의 경우 요리, 뜨개질 등의 교육을 받아 왔고, 남성은 이와 달리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해 왔다(Eagly, Wood, & Dickman, 2000).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18세기 계몽주의시대에 유행했던 생물학적 결정론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적합한 사회적 역할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여성의 경우 수동적이고 남성에 의존하는 특징을 가진 존재로 보았으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요소는 여성이 외부활동을 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이유라고 보았다(Kimmel & Hearn, 2005).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중반에 변화한다. 이 글리와 그의 동료들(Eagly et al., 2000)은 여성은 임신으로 인해 전쟁, 사냥 등의 장기간 야외활동과 신속성이 필요한 일보다 육아와 가사 등에 전념하는 형태의 성역할을 보였지만 현대로 올수록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이러한 여성의 신체적 제약은 줄어들어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에 비해 육체노동이 유리한 남성의 신체적 특성은 탈산업화 사회 이후에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여성 취업률은 1950년 34%에서 1997년 60%까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남성의 가사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helton, 1992). 또한 여성이 남성의 교육수준을 추월하여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남녀의 성역할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유급노동 여성의 증가와는 달리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에는 여전히 여성이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전통적 성역할이 존재한다(김영미, 2012;

Hochschild & Machung, 2012; Korpi, 2000; Lee, 1996; Park, 2013). 이는 오랜 시간 존재해 온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간 학습되어 온 성역할 편견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을 만들어 내며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범죄학의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역할의 인식이나 성불평등은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진다. 인간의 행동발달 과정은 관찰, 모방, 모델링에 의한 타인의 행동 학습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은 타인의 행동양상을 관찰을 통해 중요한 타자를 역할모델로 설정하게 된다(Bandura & Walters, 1977).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은 법위반에 대한 ‘정의’, ‘차별적 강화’ 및 ‘모방’을 통해 범죄에 이르게 되는데(Akers, 1985), 이러한 사회학습의 맥락은 왜곡된 성역할 인식 및 성불평등은 물론 가정폭력 정당화가 사회구성원간의 접촉을 통해 학습되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거가 될 수 있겠다.

## 2. 선행연구정리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역할의 편견과 국가수준의 여성취업률 등의 성평등 지표를 통해 가정폭력 정당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역할의 편견은 성역할 인식에서 오는 것으로, 성역할 인식이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다. 워렌과 레닝(Warren & Lanning, 1992)은 성역할인식이 가정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는 학대경험이 있는 33명의 여성과 학대경험이 없는 33명의 여성을 연령, 교육수준이 비슷한 참여자끼리 1:1로 매칭시켜 접근하였다.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의 역할을 여성적, 남성적, 중성적으로 분류하여 여성의 역할 인식수준을 확인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대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강할수록 가정에서의 학대피해의 위험이 높다는 결과였다. 린튼과 로드(Linton & Lorde, 2006) 또한 성역할인식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바베이도스에 거주하는 9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인식에 관한 설문문항을 물어봄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시나리

오를 주었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 그들의 생각을 (1) ‘일반적인 단순사고’, (2) ‘남성의 잘못’, (3) ‘여성의 잘못’, (4) ‘정당한 일이므로 문제가 없음’ 중 하나를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성역할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것으로 인식한 남성응답자일수록 ‘여성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에 대한 성역할이 왜곡되어 있을수록 학대의 원인을 피해여성의 잘못으로 돌리며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여성의 취업률은 경제적 역할에서의 남녀평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엔더버그와 동료들(Anderberg, Rainer, Wadsworth & Wilson, 2013)은 여성의 실업과 가정폭력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남성의 실업률이 높을 경우 가정폭력 위험도가 낮아질 것이며, 여성의 실업률이 높을 경우 가정폭력 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가설검증을 위해 영국 범죄조사(British Crime Survey)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지역수준의 데이터와 영국연례인구조사(UK's Annual Population Survey)에서의 노동시장조사 데이터를 묶어 GIS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의 실업률보다 여성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가정폭력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남성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가정폭력이 낮게 보고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참여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저(Aizer, 2010)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성별 간 임금격차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간 미국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수와 남녀 성별간의 임금격차를 조사해본 결과 임금격차가 클 경우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수가 임금격차가 좁아짐에 따라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취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측정도구로 활용되는 프리덤하우스 척도(Freedom House Indicators)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리(참정권 등)와 시민의 권리(법 앞의 평등, 표현의 자유, 개인의 권리 등)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장은 남녀를 불문하는 것이다(McClintock & Lebovic, 2006). 문명화이론(Civilization Perspective)은 국가가 민주화됨에 따라 범죄피해도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제도를 통한 이익추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 간 갈등의 소지가 감소함과 더불어 개인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후원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Elias, 1982). 이러한 측면은 가정폭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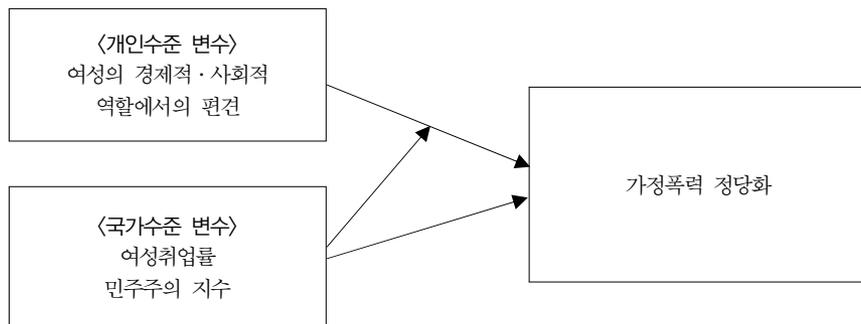
구에서는 여성의 취업률과 더불어 민주주의 수준을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수준의 지표로 상정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여성에 대한 편견, 국가수준에서의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가정폭력 정당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 수준의 변인들과 국가 수준의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여 가정폭력 정당화를 더욱 세밀하게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개인수준의 변수인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 국가수준의 변수인 여성취업률, 성별격차지수와 민주주의 지수가 가정폭력 정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이 높은 시민들일수록 가정폭력 정당화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이 높은 시민들일수록 가정폭력 정당화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국가에 사는 시민들일수록 가정폭력 정당화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민주주의지수가 낮은 국가에 사는 시민들일수록 가정폭력 정당화가 높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설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수준 변수인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과 국가수준의 변수인 여성취업률 및 민주주의 지수의 교차상호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로 개인수준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고려하였고, 국가수준에서는 GDP, 인구밀도, 남녀성비, 부패지수, 성별격차지수, 이혼율, 살인율을 고려하였다.

## 2. 연구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개인수준의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자료를 활용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는 전 세계 국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다. 다양한 국가들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들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이 폭넓게 조사되어 있는 만큼 개인과 국가 차원을 모두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는 현재까지 6차례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는 활용가능한 가장 최신 데이터인 6차 자료(2010-2012)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국가 총 60개 중 본 연구에 필요한 국가수준 주요 변수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들을 제외하고 여성취업률, 민주주의지수 등이 충실히 보고된 36개 국가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총 43435명의 시민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국가는 최종적으로 36개 국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가수준의 변인은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주요 독립 변수로는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GDP, 인구밀도, 남녀성비, 부패지수, 성별격차지수, 이혼율, 살인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6차 세계가치관조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 점을 고려

하여 국가수준의 변인 모두 총 2010, 2011, 2012년 3개년치의 데이터를 모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표 1〉 국가수준 변인과 출처

국가수준 변수	출처
여성취업률	국제부흥개발은행(World Bank)에서 발행한 노동시장 데이터베이스(the Labour Market Database)
민주주의지수	경제정보연구소(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행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GDP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US 달러)
인구밀도	세계 통계(World Statistics; 인구수/면적)
남녀성비	세계 통계(World Statistics; 남성 100명당 여성인구수)
반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행한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성별격차지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행한 국가별 성 격차 리포트(The Global Gender Gap Report)
이혼율	2014 인구통계연감(Demographic Yearbook)
살인율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인구 10만명당 살인율)

### 3. 변인 설명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의 가정폭력 정당화 인식이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 가정폭력 정당화를 측정한 문항은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것은 정당하다(For a man to beat his wife)’,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정당하다(Parents beating children)’의 두 가지로, 10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행동들이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10점을, 절대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1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두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0.887이며, Cronbach's  $\alpha$  값은 0.716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정폭력 정당화를 묻는 두 가지 문항을 변수계산을 통하여 합산 후 평균값을 내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해본 결과,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HLM 다중분석 시 로그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수준의 독립변수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을 묻는 문항은 (1) ‘직업이 부족하다면 여성보다 남성이 직업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When jobs are scarce, men should have more right to a job than women)’, (2) ‘만약 여성이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If a women earns more money than her husband, it is almost certain to cause problems)’로 질문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으로, “동의(1)”부터 “동의하지 않음(3)”까지의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두 변수의 요인적재량은 각각 0.807로 여성의 경제활동에서의 편견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을 묻는 문항으로는 (1) ‘엄마가 직장에서 돈을 번다면, 아이는 고통 받는다(When a mother works for pay, the children suffer).’, (2)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좋은 정치적 리더가 될 수 있다(On the whole,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than women do).’, (3)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A university education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4)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좋은 경영진이 될 수 있다(On the whole, men make better business executives than women do).’의 총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시 마주하게 되는 편견으로, “매우 그러함(1)” 부터 “전혀 그렇지 않음(4)”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네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0.604-0.843이며 Cronbach's  $\alpha$  값은 0.743이다. 편견에 대한 두 변인에 대해서는 항목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역코딩을 통하여 높은 값일수록 여성에 대한 편견이 높은 의미를 갖도록 조정하였다.

국가수준의 독립변인은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가 있다. 국가수준의 자료 중 여성취업률은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취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는 0점부터 10점까지로 구성되었으며, 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낮으며, 1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통제변수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고려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1, 여성=0으로 코딩변경 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1=무학력 부터 9=대학교 졸업으로, 높은 값일수록 높은 학력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가정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들(Gassikia & Basirat, 2016; Shiraz, 2016)을 참고하여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소득수준은 1~10까지의 값을 가지며,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10점에 가까워진다. 예를 들자면, 에스워렌과 말호트라(Eswaran & Malhotra, 2011)는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가해가 줄어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국가수준의 통제변수로는 성별격차지수, GDP, 인구밀도, 남녀성비, 부패지수, 이혼율, 살인율이 사용되었다. 성별격차지수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에서 출간한 성 격차 리포트에서 발췌한 것으로, (a)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b) 교육수준, (c) 보건과 수명, (d) 정치참여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를 취합한 지수이다. 이는 넓은 범위를 고려하여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통제해야 할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GDP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개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미국달러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밀도와 남녀성비의 경우 세계 통계에서 발췌한 것으로 인구밀도는 ‘인구수/면적’으로 계산되었으며, 남녀성비는 남성100명당 여성인구수를 가리킨다. 부패지수의 경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행하는 반부패지수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0에서 10점까지의 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수준이 낮은 국가를 의미한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이혼율과 살인율의 경우 각각 2014 인구통계연감과 인간개발지수에서 발췌해온 것으로, 인구 10만명 당 이혼자 수, 살인피해자 수를 가리킨다.

##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변수인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과 국가수준의 변수인 민주주의지수와 여성취업률이 가정폭력 정당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처럼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여타 양·질적 방법에 비해 우월한(김은정, 2013) 위계모형 분석방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였으며, HLM은 HLM 6.0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정폭력 정당화에 대해 개인수준의 변수와 국가수준의 변수를 함께 분석한 최종모형의 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Level-1 Model

$$Y = B0 + B1*(경제적 역할의 편견) + B2*(사회적 역할의 편견) + B3*(성별) + B4*(교육수준) + B5*(소득수준) + R$$

#### Level-2 Model

$$B0 = G00 + G01*(여성취업율) + G02*(민주주의지수) + G03*(성별격차지수) + G04*(GDP) + G05*(인구밀도) + G06*(남녀성비) + G07*(반부패지수) + G08*(이혼율) + G09*(살인율) + U0$$

## IV. 분석 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수준 데이터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정당화의 경우 평균 2.25로, 가정폭력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을 보면 최소값 1, 최대값 3이며 평균 1.87점인 것을 보였다. 이 또한 중앙값인 2점을 하향하는 수치로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들의 여성에 대한 경제적 역할의 편견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평균은 최소값 1, 최대값 4이며 평균은 2.34을 보였다. 이는 중앙값인 2.5를 약간 하향하는 정도의 값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편견 또한 대체로 높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성별의 경우 평균 0.46으로, 응답자 중 남성이 46%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평균 6.11로, 대학수준의 교육을 마치지 못

한 시민이 평균인 것을 나타낸다. 소득수준의 경우 평균 4.94로 대체로 중산층(5)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수준 변수들의 나라별 순위는 아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개인수준 변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정폭력 정당화	43435	1	10	2.25	1.96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	43435	1.00	3.00	1.87	0.69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	43435	1.00	4.00	2.34	0.70
성별	43435	0.00	1.00	0.46	0.50
교육수준	43435	1.00	9.00	6.11	2.28
소득수준	43435	1.00	10.00	4.94	2.08

<표 3> 개인수준 변수들의 나라별 순위

순위	가정폭력 정당화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	
	국가	평균	국가	평균	국가	평균
1	남아프리카공화국	4.36	요르단	3.00	이집트	2.48
2	이집트	4.02	이집트	2.97	요르단	2.46
3	싱가포르	3.44	카타르	2.93	아제르바이잔	2.38
4	중국	3.31	바레인	2.86	튀니지	2.35
5	레바논	2.86	쿠웨이트	2.86	터키	2.26
6	튀니지	2.64	튀니지	2.79	쿠웨이트	2.17
7	쿠웨이트	2.63	아제르바이잔	2.69	카타르	2.14
8	카타르	2.59	터키	2.64	키르기스스탄	2.13
9	브라질	2.52	키르기스스탄	2.54	레바논	2.10
10	카자흐스탄	2.50	레바논	2.52	바레인	2.09

∴	∴	∴	∴	∴	∴	∴
27	키프로스	1.54	키프로스	2.05	페루	1.67
28	폴란드	1.53	칠레	2.03	브라질	1.64
29	루마니아	1.52	페루	2.02	폴란드	1.63
30	스페인	1.45	슬로베니아	1.99	독일	1.53
31	호주	1.44	스페인	1.94	미국	1.43
32	일본	1.43	뉴질랜드	1.91	슬로베니아	1.40
33	조지아	1.42	미국	1.89	스페인	1.35
34	스웨덴	1.39	독일	1.83	호주	1.33
35	뉴질랜드	1.35	호주	1.79	뉴질랜드	1.32
36	칠레	1.30	스웨덴	1.72	스웨덴	1.24

\* 한국: 가정폭력 정당화 26위(1.55),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 20위(2.29),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 15위(1.9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가수준 데이터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4>와 같다. 여성 취업률의 경우 최소값 15.5, 최대값 67.8이며 평균 49.563을 나타냈다. 이를 보았을 때, 분석에 사용된 36개 국가의 여성취업률은 평균 5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최소값 3.0, 최대값 9.6이며, 평균 6.16으로 중앙값인 5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GDP의 경우 평균 21035.67달러를 보이며, 인구밀도의 경우 356.346의 평균을 보인다. 남녀성비는 99.739로, 비교적 성비의 균형이 맞지만 여성의 인구가 살짝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부패지수는 최소값 2.2, 최대값 9.3, 평균 5.18로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은 국가인데 평균값이 중앙값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혼율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평균 171.849명이 이혼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살인율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5.81명이 살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독립변수인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 지수의 나라별 순위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국가수준 변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여성취업률	36	15.5	67.8	49.56	12.45
민주주의지수	36	3.0	9.6	6.16	2.05
GDP	36	869.9	87664.8	21035.767	20097.93
인구밀도	36	2.9	7373.3	356.3	1220.52
남녀성비	36	92.4	124.8	99.70	5.40
반부패지수	36	2.2	9.3	5.18	2.23
성별격차지수	36	5.9	8.1	6.84	0.52
이혼율	36	3.0	455.2	171.80	85.49
살인율	36	0.2	37.0	5.81	8.82

〈표 5〉 국가수준 변수들의 나라별 순위

순위	여성취업률		민주주의 지수	
	국가	평균	국가	평균
1	페루	67.80	스웨덴	9.57
2	카자흐스탄	67.23	뉴질랜드	9.30
3	아제르바이잔	62.17	호주	9.20
4	뉴질랜드	61.83	독일	8.30
5	스웨덴	59.63	미국	8.13
6	브라질	59.47	일본	8.10
7	호주	58.87	한국	8.10
8	싱가포르	58.13	스페인	8.07
9	미국	57.13	슬로베니아	7.80
10	러시아	56.77	남아프리카공화국	7.80
⋮	⋮	⋮	⋮	⋮
27	일본	45.87	아르메니아	4.10
28	멕시코	44.00	러시아	3.97
29	남아프리카공화국	43.87	이집트	3.90

30	쿠웨이트	43.10	요르단	3.80
31	바레인	39.37	쿠웨이트	3.80
32	터키	28.60	아제르바이잔	3.20
33	튀니지	25.00	카자흐스탄	3.17
34	이집트	23.43	카타르	3.17
35	레바논	22.57	중국	3.07
36	요르단	15.50	바레인	2.97

\* 한국: 여성취업을 22위(49.57), 민주주의지수 7위(8.10)

## 2. HLM 분석결과

### 1)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s)

무조건 모형은 가정폭력 정당화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변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값 25.1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p<0.001). 이는 가정폭력 정당화가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총 변량 중에서 국가수준이 설명하는 변량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값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정당화를 국가수준에서 17.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는 국가수준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표 6〉 가정폭력 정당화에 대한 무조건 모형 분석

고정효과 (Fixed Effect)	Coefficient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절편G00 (Intercept)	0.51	0.02	25.14***	0.000
무선효과 (Random Effect)	Standard Deviation	Variance Component	Chi-square	P-Value
절편U0 (Intercept)	0.12	0.02	11750.54	0.000

\*p < 0.05, \*\*p < 0.01, \*\*\*p < 0.001

## 2) 개인수준 모형

다음으로 개인수준의 변수들이 가정폭력 정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정당화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성역할로 인식하는 경우 가정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로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남성일수록 가정폭력 정당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정당화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수준의 경우 가정폭력 정당화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정폭력 정당화에 대한 개인수준 모형 분석

Fixed Effect	Coefficient	Standard Error	T-ratio	P-value
Intercept	0.51	0.02	25.14***	0.000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	0.01	0.00	10.79***	0.000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	0.01	0.00	2.41*	0.016
성별	0.03	0.00	5.37***	0.000
교육수준	-0.00	0.00	-1.83	0.067
소득수준	0.01	0.00	2.59**	0.010

\*p < 0.05, \*\*p < 0.01, \*\*\*p < 0.001

## 3) 결합모형(고정효과)

종속변인인 가정폭력 정당화에 대해 개인수준의 변수와 국가수준의 변수를 함께 분석한 결합모형 분석결과 국가수준의 변수에서 인구밀도와 민주주의지수, 여성취업률이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가수준 변수의 독립변수인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 모두 가정폭력 정당화에 부(-)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취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시각이 낮은 것을 나타내며,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국가의

국민들의 경우 가정폭력이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한 인구밀도가 가정폭력 정당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경우 가정폭력 정당화지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통제 변수인 GDP와 남녀성비, 반부패지수, 성별격차지수, 이혼율, 살인율은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수준 변인들의 영향력은 개인수준 모형에서와 유사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 사용한 두 변인이 하나는 여성폭력 정당화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자녀폭력 정당화를 의미하기에 양자 간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별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큰 틀에서 여성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별첨 참조).

〈표 8〉 결합모형(고정효과) 분석

	Fixed Effect	Coefficient	Standard Error	T-ratio	P-value
개 인 수 준	경제적 역할의 편견	0.014	0.001	10.787***	0.000
	사회적 역할의 편견	0.005	0.002	2.406*	0.016
	성별	0.027	0.005	5.369***	0.000
	교육수준	-0.002	0.001	-1.829	0.067
	소득수준	0.007	0.003	2.587**	0.010
국 가 수 준	여성취업율	-0.004	0.002	-2.734*	0.012
	민주주의지수	-0.028	0.010	-2.730*	0.012
	GDP	0.000	0.000	1.599	0.122
	인구밀도	0.000	0.000	6.951***	0.000
	남녀성비	-0.001	0.002	-0.435	0.667
	반부패지수	-0.023	0.016	-1.437	0.163
	성격차지수	0.077	0.053	1.463	0.155
	이혼율	-0.000	0.000	-1.610	0.119
	살인율	0.003	0.002	1.451	0.159

#### 4) 교차상호작용모형

마지막으로 개인수준의 변수와 국가수준의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가정폭력 정당화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위해 교차상호작용모형을 분석하였다. 교차상호작용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과 여성취업률, 민주주의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가정폭력 정당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의 경우 여성취업률과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민주주의지수와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지수가 높은 국가에 속한 시민의 경우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낮아야 하지만 성편견이 높을 경우에는 가정폭력 정당화가 증폭되는 효과를 보였다.

〈표 9〉 교차수준적 상호작용모형

	Fixed Effect	Coefficient	Standard Error	T-ratio	P-value
개 인 수 준	경제적 역할의 편견	0.014	0.001	10.787***	0.000
	*여성취업률	0.000	0.000	0.669	0.503
	*민주주의 지수	0.001	0.001	0.993	0.321
	사회적 역할의 편견	0.005	0.002	2.406*	0.016
	*여성취업률	-0.000	0.000	-1.450	0.147
	*민주주의 지수	0.002	0.001	2.284*	0.022
	성별	0.027	0.005	5.369***	0.000
	교육수준	-0.002	0.001	-1.829	0.067
	소득수준	0.007	0.003	2.587**	0.010
국 가 수 준	여성취업률	-0.004	0.002	-2.734*	0.012
	민주주의지수	-0.028	0.010	-2.730*	0.012
	GDP	0.000	0.000	1.599	0.122
	인구밀도	0.000	0.000	6.951***	0.000
	남녀성비	-0.001	0.002	-0.435	0.667
	반부패지수	-0.023	0.016	-1.437	0.163
	성격차지수	0.077	0.053	1.463	0.155
	이혼율	-0.000	0.000	-1.610	0.119
	살인율	0.003	0.002	1.451	0.159

## V. 결 론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가정폭력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화두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개인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에서는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를 가정폭력 정당화의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인식변인인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서의 편견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 모두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을 지지하였다. 가설이 예상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편견이 높은 개인일수록 가정폭력을 정당하다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성별과 소득수준 또한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성별의 경우 남성일수록 가정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으며, 흥미롭게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정당화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변수의 경우 독립변수인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 그리고 통제변수인 인구밀도만이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일관되게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가정폭력 정당화가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는 모두 남녀에 대한 국가수준의 평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지표들이 낮을수록 여성에 대한 국가적 편견이 낮다는 것을 상징한다(Anderberg et al., 2013; McClintock & Lebovic, 2006).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이 가정폭력 정당화에 부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통제변수인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정당화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밀도가 높은 중동국가 등의 특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교차상호작용모형 분석 결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편견이 민주주의지수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이며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높은 편견을 가질 경우 가정폭력 정당화가 증폭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였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편견

이 높게 되면 가정폭력 정당화와 관련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였다. 민주주의 수준이 비슷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종교, 문화, 정치 등에 있어서는 개인적·사회적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유은혜, 2016), 민주주의가 높은 곳에서 존재하는 편견은 민주화 수준에 비해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며 구성원들에게 더 부정적인 작용을 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개인수준에서 국민들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국가수준에서 여성취업은 물론 남녀평등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정폭력 정당화를 감소시키는 기저가 될 수 있겠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UN에서는 1946년 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는 UN에 가입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개인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여성취업 등 국가수준의 성차별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국제적인 움직임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수도 있으므로 각 국가별로도 성편견과 성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겠다.

스웨덴의 경우 양육에서의 성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세계최초로 1974년 부모휴가정책(Parental Leave)을 도입하였다. 이는 동등한 부모의 역할을 목표로 설립된 정책으로, 출산 시 총 480일이라는 휴가기간과 평균 임금의 약 80%를 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하여 여성이 육아휴직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송지원, 2015).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성역할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인해 스웨덴은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양육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성 채용의 기회,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 부분 등을 고려한 국가·사회적 노력으로 가정폭력 정당화의 요인이 되는 성편견과 성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국가적 변수를 고려하여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 있게 분석하였지만 여러 국가를 고려함

에 있어서의 한계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세계가치관조사를 진행한 국가는 총 60개국이었으나, 국가수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제외되면서 36개국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국제적인 지표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들은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불평등이 심한 국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 참고문헌

- 기광도. (2011). 가정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한국경찰연구』, 10(4), 93-114.
- 김엘림·윤덕경·박현미. (2001).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정책개발원』.
- 김영미. (2012).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분석. 『사회보장연구』, 28(2), 211-241.
- 김은정. (2013). 경호·경비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의 활용.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4, 33-55.
- 남인숙. (1999).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여성의 시각에서 본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이론』, 17(단일호), 135-164.
- 손덕수. (1990). 서양에서의 성차별인식. 『여성문제연구』, 18(단일호), 99-117.
- 송지원. (2015). 아버지의 휴직사용을 장려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국제노동브리프』, 13(6), 78-85.
- 유은혜. (2016). 신자유주의, 초국적 사회운동과 여성의 정치적 삶의 질: 여성의 정치적 권능화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2(1), 209-228.
- 정윤태·서재욱. (2016). 성역할 태도와 맞벌이 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기혼,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형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143-160.
- Adams, M., & Coltrane, S. (2005). Boys and men in families. *Handbook of Studies on Men and Masculinities*, 230-248.
- Aizer, Anna. (2010). The gender gap and domestic violence. *American Economist Review*, 100, 1847-1859.
- Akers, R. 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Akram, M. B., & Manzoor, B. (2015). Impact of wife battering on the family.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6(4), 344.
- Anderberg, D., Rainer, H., Wadsworth, J., & Wilson, T. (2013). Unemployment and domestic violence: theory and evidence. *IZA Discussion Paper*, 7515, 1-37.
- Bandura, A., & Walters, R. H. (1977). Social learning theory.
- Betancourt, T. S., Newnham, E. A., Layne, C. M., Kim, S., Steinberg, A. M., Ellis, H., & Birman, D. (2012). Trauma history and psychopathology in war-affected refugee children referred for trauma-related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 25(6), 682-690.
- Coker, A. L., Davis, K. E., Arias, I., Desai, S., Sanderson, M., Brandt, H. M., & Smith, P.H.(2002). Physical and mental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for men and wome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3(4), 260-268.
- Davies, P. J., & Dreyer, Y. (2014). A pasto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domestic violence in South Africa. *HTS Theological Studies*, 70(3), 01-08.
- Eagly, A. H., Wood, W., & Diekmann, A. B. (2000). Social role theory of sex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 current appraisal. *The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Gender*, 123-174.
- Elias, N. (1982). *The civilizing process*. Oxford, UK: Blackwell.
- Eswaran, M., & Malhotra, N. (2011). Domestic violence and women's autonomy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y and evid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que*, 44(4), 1222-1263.
- Farris, C. A., & Fenaughty, A. M. (2002). Social isolation and domestic violence among female drug users.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28(2), 339-351.
- Haynie, D. L., & Armstrong, D. P. (2006). Race and gender-disaggregated homicide offending rate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y victim-offender relations across cities. *Homicide Studies*, 10(1), 3-32.
- Hochschild, A., & Machung, A. (2012). *The second shift: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Penguin.
- Howing, P. T., Wodarski, J. S., Kurtz, P. D., Gaudin, J. M., & Herbst, E. N. (1990). Child abuse and delinquency: The empirical and theoretical links. *Social Work*, 35(3), 244-249.
- Huang, C. C., Wang, L. R., & Warrener, C. (2010).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aged children: Do maternal mental health and parenting mediate the effec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0), 1317-1323.
- Hyde-Nolan, M. E., & Juliao, Tracy. (2012). Theoretical basis for family violence. *Family Violence: What Health Care Providers Need to Know*, 5-16.
- Kharazmi, A., Armanmehr, V., Moradi, N., & Bagheri, P. (2015).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lifetime prevalence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in Iran. *Asian Women*, 31(4), 77-97.
- Kilpatrick, D. G., Acierno, R., Saunders, B., Resnick, H. S., Best, C.L., & Schnurr, P. P. (2000).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bstance abuse and dependence: data from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1), 19.
- Korpi, W. (2000).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7(2),

127-191.

- Lander, I. (2014). Gender, aging and drug use: A post-structural approach to the life cours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5(2), 270-285.
- Lee, M. S. (1996). The effects of sex-role attitude and sex-role Identity on the housework sharing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Human Science*, 16(1), 153-173.
- Lei, M. K., Simons, R. L., Simons, L. G., & Edmond, M. B. (2014). Gender equality and violent behavior: How neighborhood gender equality influences the gender gap in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29(1), 89-108.
- Lindsey, L. L. (2015). Gender roles: A sociological perspective. *Routledge*.
- Linton, C., & Lorde, T. (2011). The influence of gender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domestic violence culpability assignment in Barbados.
- McClintock, C., & Lebovic, J. H. (2006). Correlates of levels of democracy in Latin America during the 1990s.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48, 29-59.
- Park, J. S. (2013). Gauging gender equality in terms of household labor division and gender-role percep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99, 28-38.
- Pizzey, E. (1977). Scream quietly or the neighbors will hear. *Short Hills*.
- Pratt, T. C., & Godsey, T. W. (2003). Social support, inequality, and homicide: A cross-national test of an integrated theoretical model. *Criminology*, 41(3), 611-644.
- Şahin, N. H., Timur, S., Ergin, A. B., Taşpınar, A., Balkaya, N. A., & Çubukçu, S. (2010). Childhood trauma, type of marriage and self-esteem as correlates of domestic violence in married women in Turke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7), 661-668.
- Salcioglu, E., Urhan, S., Pirincioglu, T., & Aydin, S. (2017). Anticipatory fear and helplessness predict PTSD and depression in domestic violence survivor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9(1), 117.
- Schalkwyk, J. (2000). Culture,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CIDA)*, Quebec.
- Shelton, B. A. (1992). Women, men, and time: Gender differences in paid work, housework, and leisure (No. 127). *Greenwood Pub Group*.
- Showalter, K. (2016). Women's employment and domestic viol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1, 37-47.
- Siegel, J. A., & Williams, L. M. (2003). Risk factors for sexual victimization of women results from a prospective study. *Violence Against Women*, 9(8), 902-930
- Straus, M.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Eds.).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Transaction Publishers*.

- Warren, J., & Lanning, W. (1992). Sex role beliefs, control, and social isolation of 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7(1), 1-8.
- Yoo, Jeong Ah & Huang, Chien-Chung. (2012).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sessing the moderating roles of poverty and marital statu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2464-2473.

【Abstract】

## The Effect of Female Employment and Prejudice against Women on Justification of Family Violence: A Multi-Level Analysis

Jang, Cho-Rok<sup>\*</sup> · Hong, Myeong-Gi<sup>\*\*</sup> · Hwang, Eui-Gab<sup>\*\*\*</sup>

This study analyzed individual-level and country-level factors affecting justification of domestic violence amid emerging social significance of family violence. For individual-level variables, prejudice against women in economic and social roles were used from the World Value Survey data. As for country-level variables, total of 36 countries were analyzed with indices that represents gender equality such as women's employment rate and democracy index. Women's employment rate was gathered from the Labour Market Database of the World Bank and democracy index was from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esults showed that both individual-level, prejudice against women in economic and social roles and country-level variables such as women's employment rate and democracy index had significant effects on justification of domestic violence. This result implies the importance of creating positive social culture which promotes positive attitudes towards perceptions of gender role and gender equality. As well, country-level endeavors to raise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deem important.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Justification for Domestic Violence, Gender Inequality, Prejudice against Women, Democracy, Women's Employment Rate

---

\* Master of Science(MS), Department of Criminology, Kyonggi University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riminology, Kyongg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별첨1>

<표 10> 자녀 폭력 및 아내 폭력 정당화 인식에 대한 결합모형(고정효과) 분석

Fixed Effect		Model 1 자녀 폭력에 대한 정당화 인식		Model 2 아내 폭력에 대한 정당화 인식	
		Coefficient	Standard Error	Coefficient	Standard Error
개 인 수 준	경제적 역할의 편견	0,027***	0,003	0,022***	0,003
	사회적 역할의 편견	0,025**	0,009	0,041***	0,012
	성별	0,017***	0,005	0,034***	0,0063
	교육수준	-0,001	0,001	-0,004**	0,001
	소득수준	0,007**	0,003	0,007*	0,003
국 가 수 준	여성취업율	-0,004*	0,002	-0,003*	0,001
	민주주의지수	-0,031*	0,013	-0,003	0,009
	GDP	0,000	0,000	0,000	0,000
	인구밀도	0,000***	0,000	0,000***	0,000
	남녀성비	-0,003	0,002	0,002	0,001
	반부패지수	-0,017	0,018	-0,032*	0,013
	성격차지수	0,087	0,066	0,088	0,046
	이혼율	-0,000	0,000	-0,000	0,000
	살인율	0,004	0,003	0,001	0,002

\*p < 0,05, \*\*p < 0,01, \*\*\*p < 0,001